

인스나프록센정

NAPROXEN (Tab.)

(나프록센나트륨)

일반 의약품

분류번호:114

관절통, 근육통, 외상후 통증, 치통

[원료약품 및 분량] 1정 중

나프록센나트륨(KP).....275mg

[성상]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효능·효과]

1. 주요효 효과: 류마티양 관절염, 골¹⁾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강직성 척추염, 건염(힘줄염), 급성통풍, 월경관통증
2. 다음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 활액²⁾낭염, 골¹⁾격근장애(염좌, 탈臼), 좌상(타박상/멍), 외상, 요천통(하리통증), 수술후 동통³⁾, 편두통, 발치⁴⁾후 동통³⁾

[용법·용량]

1. 류마티양 관절염, 골¹⁾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성인 나프록센나트륨으로서 1회 275-550mg(1-2정) 1일 2회(12시간마다) 경구투여⁵⁾
2. 급성통풍: 성인 나프록센나트륨으로서 초회량(처음 복용(사용)량)으로 825mg(3정)을 경구투여⁵⁾하고 발치가 소실될 때까지 8시간간격으로 275mg(1정)을 경구투여⁵⁾
3. 월경관통증, 골¹⁾격근장애, 수술후 동통³⁾, 발치⁴⁾후 동통³⁾, 건염(힘줄염), 활액²⁾낭염: 성인 나프록센나트륨으로서 초회량(처음 복용(사용)량)으로 550mg(2정)을 경구투여⁵⁾한 후 6-8시간 간격으로 275mg(1정)씩 투여한다. 1일 총용량이 135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편두통: 성인 나프록센나트륨으로서 초회량(처음 복용(사용)량)으로 825mg(3정)을 경구투여⁵⁾ 필요하면 1일 275-550mg(1정-2정)을 더 투여할 수 있으며 초회량(처음 복용(사용)량)의 투여 30분후에 투여한다. 1일 총용량이 135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연령(나이),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2) 심혈관계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혈관막힘)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⁸⁾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⁸⁾되는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3) 위장관계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는 위 또는 장관의 출혈, 궤양 및 천공⁹⁾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경도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¹⁰⁾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단기 투여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¹¹⁾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를 중증¹¹⁾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투여 중단하는 것도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소화성궤양 환자 2) 심한 혈액이상 환자 3) 심한 간장애 환자 4) 심한 심기능부전²⁰⁾ 환자 5) 심한 신장애²¹⁾ 환자 6) 심한 고혈압 환자 7) 이 약의 성분 또는 아스피린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8)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COX-2 저해제¹⁰⁾ 포함)에 의하여 천식, 비염(코염), 코의 용종,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이러한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 투여후 치명적인 중증¹¹⁾의 아나필락시양 반응¹¹⁾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9) 관상동맥(심장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풍의 치료 10) 이 약은 유당¹²⁾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¹²⁾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소화성궤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혈액이상 또는 그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혈소판 기능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4) 간장애 또는 그의 병력이 있는 환자 5) 신장애²¹⁾ 또는 그의 병력이 있는 환자 및 신혈류량이 저하된 환자 6) 심기능 장애 환자 7) 고혈압 환자 8)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9) 기관지천식 환자 10) 전신²¹⁾성홍반성루푸스(SLE) 환자 및 혼합결합조직질환(MCTD) 환자 11) 고령자¹⁰⁾

4. 이상반응 1) 과민증: 드물게 속쓰림(호흡곤란, 혈압강하, 서맥(느린맥), 식은땀, 부종¹³⁾ 등), PLE충후군(호산구증가를 수반하는 폐침윤: 발열, 천명(숨을 쉴때 거름), 기침, 가래를 동반함), 두드러기, 때때로 발진, 가려움 등의 과민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2) 소화기계: 드물게 토혈(혈액구토), 위장출혈, 소화성궤양, 천공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때때로 위부불쾌감, 위통, 복통(배아픔), 구역, 구토, 식욕부진, 소화불량, 가슴쓰림, 설사, 변비, 구내염(입안염) 드물게 복부팽만감, 흑변(검게변함), 구갈(구미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혈액: 드물게 무과립구증, 호산구증다, 백혈구감소, 혈소판감소, 재생불량성빈혈, 용혈성(적혈구파괴성)빈혈, 혈소판 기능저하(출혈시간의 연장) 등의 혈액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혈액검사를 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4) 간장: 드물게 GOT, GPT치의 상승, 황달, 간염이 나타날 수 있다. 5) 신장¹⁹⁾: 드물게 신장애²¹⁾, 사구체 신염¹⁹⁾, 혈뇨, 고칼륨 혈증, 간질성 신염¹⁹⁾, 신중후군, 신장¹⁹⁾ 유두괴사, 단백뇨(단백질이 섞인 오줌), 신부전²⁰⁾이 나타날 수 있다. 6) 정신신경계: 드물게 무균성 수막염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심한 두통, 구역, 구토, 불면, 목이 뻣뻣함, 발열 또는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며, 특히 자기면역질환(SLE, MCTD)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한다. 또한 때때로 졸음, 인식기능장애 드물게 현기(어지러움), 두통, 수축(손발)저림, 정력감퇴, 피로, 우울, 비정상적인 꿈, 집중능력 상실, 지남(방향감각) 상실, 불면, 근육통, 근쇠약이 나타날 수 있다. 7) 피부: 때때로 습진, 발한(땀이남), 자반(자주색반점) 드물게 광과민증, 탈모,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괴사성용해, 다형성홍반(여러모양의 붉은반점), 스티븐스-존슨증후군(피부점막인증후군), 두드러기, 포피 수포(물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8) 감각기계: 이명(귀울림),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9) 기타: 때때로 부종¹³⁾, 호흡곤란, 드물게 심계항진(두근거림), 근육력증(근육무력증), 용혈성심부전²⁰⁾, 호산구성 폐렴, 아나필락시양 반응¹¹⁾, 월경장애,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과 발열, 맥관염(혈관염), 고혈당,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 약 및 다른 대체 치료법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은 각 환자의 치료 목적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최단 기간 동안 최소 유효용량으로 투여한다. 2) 소염⁷⁾진통제에 의한 치료는 원인요법이 아닌 대증요법(증상별로 치료하는 방법)임에 유의한다. 3) 만성질환(만성관절류마티즘, 변형성 관절증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이 약을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임상검사(노검사, 전혈구 검사(CBC) 및 이화학적 검사 등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안과 검사 등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람(증), 휴약(복용(사용)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²¹⁾적인 징후에: 호산구증가증, 발진이 발현⁸⁾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② 약물요법 이외의 치료법도 고려한다. 4)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급성염증, 동통²⁾ 및 발열의 정도를 고려하여 투여한다. ② 원칙적으로 동일한 약물의 장기투여는 피한다. ③ 원인요법이 있으면 그것을 실시한다. 5)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반응의 발현⁸⁾에 유의한다. 과도한 체온강하, 허탈, 시야¹⁹⁾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고열을 수반하는 소아 및 고령자¹⁰⁾ 또는 소모성 질환 환자에게는 투여 후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한다. 허약자에게는 필요한 최소량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이상반응의 발현⁸⁾에 특히 유의한다. 6) 이 약의 약리학적 특성상 염증의 다른 증상과 징후를 불현성화(증상이 나타나지 않게)하여 통증 및 비감염성 조건하에서 감염성 합병증의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 약을 감염에 의한 염증에 대해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항균제를 병용¹⁶⁾하고 관찰을 충분히 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7) 위장관계 이상반응: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를 궤양성 질환 또는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시 극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화성 궤양 질환 및/또는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 투여시 위장관 출혈의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위장관계 출혈을 증가시키는 다른 위험인자로는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항응고제 병용¹⁶⁾,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의 장기 사용, 알콜 섭취, 고령, 허약한 건강상태 등이 있다. 치명적인 위장관계 이상반응에 대한 자발적 보고의 대부분은 고령자¹⁰⁾ 및 허약자에 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8) 고혈압: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는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심혈관계 유효성분의 발생률이 증가될 수도 있다. 치아징게 이노제 또는 루프형 이노제를 복용중인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 진통제 복용시 이들 요법에 대한 반응이 감소될 수 있다.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는 고혈압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 초기와 투여기간 동안에 혈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9) 율혈성심부전 및 부종¹⁴⁾: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를 복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체액 저류¹⁷⁾ 및 부종¹⁴⁾(말초적인 부종¹⁴⁾ 포함)이 관찰되었다. 이 약은 체액 저류¹⁷⁾ 또는 심기는 부전²⁰⁾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10)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를 장기간 복용시 신장¹⁸⁾유두괴사나 기타 신장¹⁸⁾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신혈류를 유지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심부전²⁰⁾환자, 신기능 부전²⁰⁾환자, 간기능 부전²⁰⁾환자, 이노제나 ACE 저해제¹⁹⁾를 투여 중인 환자, 고령자¹³⁾ 등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약을 중단하면 대부분 치료 전 상태로 회복된다. 11) 진행된 신질환: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서 이 약 사용에 대한 통제된 임상 시험은 실시된 바 없다.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해야 한다면, 환자의 신장¹⁸⁾ 기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12)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의 투여로 간기능 수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검사수치는 치료가 지속됨에 따라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거나 또는 일시적일 수 있다. 또한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 투여로, 황달, 치명적 전격성 간염(급격히 발생하는 간염), 간괴사, 간부전(간기능상실/일부는 치명적임)을 포함한 중증¹⁹⁾의 간 관련 이상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간기능 이상을 암시하는 증상 및/또는 징후가 있는 환자 또는 간기능 시험 결과 비정상인 환자에 있어서는 투여기간 동안 주의깊게 간기능의 악화 여부를 관찰하고, 간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¹⁸⁾적인 징후(예: 호산구증가증, 발진)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13)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의 투여로 빈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의 장기 투여에 의해 빈혈의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치 또는 헤마토크리트치를 검사해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출혈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스피린과 달리 이 약의 혈소판 기능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고 지속기간이 짧으며 가역적이다. 응고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혈소판 기능 변경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시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4) 아나필락시양 반응¹⁹⁾: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아나필락시양 반응¹⁹⁾은 약물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복합 증상은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 투여 후 비칙(코작) 풀립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중증¹⁹⁾의 기관지 경련을 나타내는 전신 환자에게 전형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아나필락시양 반응¹⁹⁾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피부반응: 이 약은 탈락성 피부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 표피괴사 같은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들 중대한 이상반응은 경도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초기 1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환자는 중대한 피부 발현¹⁹⁾ 증상 및 징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피부 발진 또는 다른 과민반응의 최초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때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16) 천식 환자 중 일부는 아스피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아스피린 민감성 전신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¹⁹⁾의 기관지경련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서 아스피린과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 간의 기관지경련을 포함하는 교차반응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이 약은 이러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전신 환자에게는 주의깊게 사용해야 한다. 17) 이 약은 코르티코이드 제제를 대체하거나 코르티코이드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사용될 수 없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갑작스러운 투여 중단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 반응성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장기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해 온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서히 용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6. 상호작용 1)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NSAIDs) 및 나프록센 유도체와 병용¹⁶⁾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¹⁶⁾하지 않는다. 2) 하단도뇨제 항간질제, 설파제, 설폰닐요소계 혈당강화제: 이러한 약물과 병용¹⁶⁾투여시 그 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3) 프로프라놀롤 및 다른 β-차단제: 이 약과의 병용¹⁶⁾투여로 인해 항고혈압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4) ACE 저해제¹⁹⁾(캅토프릴 등) 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에 의해 ACE 저해제¹⁹⁾의 항고혈압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 약과 ACE 저해제¹⁹⁾를 병용¹⁶⁾투여하는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② ACE저해제¹⁹⁾(캅토프릴)와의 병용¹⁶⁾에 의해, 신장애¹⁹⁾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¹⁶⁾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5) 루프계 이노제 및 치아징게 이노제 ① 임상시험 및 시판후 조사 결과 이 약의 신장¹⁸⁾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에 의해 일부 환자에서 프로세미드 및 치아징게 이노제의 나트륨배설 효과 감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약물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를 병용¹⁶⁾투여하는 동안 신부전²⁰⁾징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② 이 약은 루프계 이노제(프로세미드, 페레타나이드) 및 치아징게 이노제의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¹⁶⁾투여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6) 프로베네시드: 병용¹⁶⁾투여시 이 약의 혈중농도가 상승하여 혈중 반감기가 연장되므로 감량(줄임)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7) 아스피린: 아스피린과의 병용¹⁶⁾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의 사용과 관련된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반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관된 증거는 없다.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과 아스피린의 병용¹⁶⁾에 의해 중증¹⁹⁾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의 병용¹⁶⁾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8) 리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는 신장¹⁸⁾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에 의해 혈청 리튬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리튬의 신클리어런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와 리튬의 병용¹⁶⁾ 투여 시 리튬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¹⁶⁾하는 경우 리튬의 독성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감량(줄임)하는 등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9) 메토트렉세이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NSAIDs)와의 병용¹⁶⁾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합용요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는 병용¹⁶⁾투여하지 않으며, 저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¹⁶⁾투여시 신중히 투여되어야 한다. 10) 쿠마린계 항응혈제(와파린 등) ① 위장관계 출혈에 대하여 와파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는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환자는 단독으로 투여하는 경우와 비해 중증¹⁹⁾의 위장관계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② 쿠마린계 항응혈제와 병용¹⁶⁾투여시 그 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11) 지도부딘: 이 약은 지도부딘의 대사를 억제하고 혈중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¹⁶⁾하는 경우에는 감량(줄임)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12) 뉴퀴놀론계 항생물질(예:노사신 등): 이 약과 병용¹⁶⁾에 의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7. 임부에 대한 투여 1) 이 약을 임부에 투여한 임상자료가 없다. 동물실험에서 주산기(출산후기)에 투여하여 분만 지연, 난산의 발생 빈도 증가 및 새끼의 생존율 감소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신말기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2) 임신말기의 댁트에 투여한 실험에서 태자의 동맥관수축이 보고된 바 있다.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⁷⁾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임신 말기에 이 약을 투여 시 태아의 동맥관을 조그 폐쇄시킬 수 있으므로 이 약은 임부에 투여를 피해야 한다. 3)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의성이 위험성을 상회(웃돌, 웃돌다)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8.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은 모유로의 이행이 일어나 신생아에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9. 소아에 대한 투여 1) 2세 이하의 영아(젖먹이)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아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량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이상반응의 발현¹⁹⁾에 특히 유의한다.

10. 고령자¹³⁾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¹³⁾는 소염⁷⁾진통제에 의한 소화관의 궤양, 출혈 등의 발현¹⁹⁾이 높으므로 소량부터 투여를 시작하여 필요한 최소량으로 투여하고 이상반응의 발현¹⁹⁾에 특히 유의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11. 임상검사치에 대한 영향 1) 17-케토제닉 스테로이드의 측정에 영향을 주므로 측정 72시간 전에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2)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고 출혈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므로 출혈시간을 측정할 때는 주의한다.

12. 과량투여시의 처치: 과량투여시 졸음, 가슴쓰림, 소화불량, 구역, 구토가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세척을 하고 활성탄을 사용하여 혈청농도를 줄여야 한다.

1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주석 1)콜: 뼈²¹⁾칼슘: 윤활, 윤활함 3)동통: 통증 4)발진: 이물범음 5)경구투여: 먹는다, 복용한다 6)발현: 드러냄, 드러내보임 7)소염: 항염 8)천공: 뚫음 9)신장에: 신장장애 10)저해제: 억제제 11)아나필락시양반응: 과민성유사반응 12)유당: 젖당 13)고령자: 노인 14)부종: 부기 15)신염: 신장염 16)병용: 함께복용(사용) 17)체액저류: 체액고임 18)신장: 콩팥 19)중증: 심한증상 20)부전: 기능상실 21)전신: 온몸 22)속: 쇼크 23)사지: 팔다리

[저장방법] 기밀용기, 간병암시(건조, 시원, 어두운곳)보관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단위] 10정

※의약품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용어 설명 및 기타 자세한 의약품 정보는 이지드럭 (<http://ezdrug.mfds.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 를 참조하세요.

※소비자상담실: 080-908-3000 ※ 홈페이지: www.inspharm.co.kr

본 의약품은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에 따라 품질검사를 필한 제품입니다. 만약 구입시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변패, 오염, 손상된 제품은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작성일자: INS 2013.08.23

■ 제 조 자 (주)한국파비스제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83번길 127

■ 제조의뢰자 한국인스팜(주)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17